

백원국 2차관 “모빌리티 전담기구 출범 혁신의 산파 역할 할 것” -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...모빌리티 혁신에 힘 싣는다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30일(월)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(본사, 경북 김천)에서 열린 ‘모빌리티 지원센터’ 개소식에 참석했다.
 - * 참석 : 2차관, 공단 이사장, 송언석 의원, 경상북도 부지사, 도로공사 부사장, 교통학회장 등
 -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시행된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 전담 지원기관으로,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, 모빌리티 현황조사, 지자체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이 날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하면서, “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간 쌓아온 교통·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전했다.
 - 또한, 백 차관은 “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 기존 업계와의 갈등, 엄격한 규제 등을 뚫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끈질기게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변화의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”며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백 차관은 “정부 역시 모빌리티 지원센터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데 앞장서겠다”는 지원의지도 피력하였다.
 - 특히, “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할 것”이라면서 새로 도입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밝혔다.
- 한편, 새롭게 문을 연 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는 10월 19일(목)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·접수(www.kotsa.or.kr)를 받고 있으며, 법률 컨설팅 및 신청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023. 10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